

# 양림동에 또 하나의 문화명소 뒀다



23일 정식 개관하는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내부. 원래 있던 나무를 활용해 오래된 세월을 강조했다. <아트폴리곤 제공>

## 복합문화공간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내일 개관

방치된 폐차고지 리모델링

내달 25일까지 개관전

촬영성·한희원·이이남 참여

미술·음악 다양한 시도

영화 상영·인문학 강좌도

우월순 선교사 사택 등 옛 선교사 사택이 즐비한 광주 남구 양림동 호랑가시나무길을 걷다보면 지난해 조성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이하 아트폴리곤)이 나온다. 호랑가시나무 창작소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주)아트주(대표 정현기)가 수십년간 비어있던 폐차고지를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증축해 지난해 7월 완성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전시장 중간에 서 있는 고사된 나무, 양철문, 건물 내부까지 파고든 널퉁 등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게 특징이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과 넓은 통유리가 설치된 새건물은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세련되면서도 고풍스런 분위기를 동시에 풍긴다.

그동안 아트폴리곤은 창작소 입주작가 결과발표전이나 '문화가 있는 날' 영화상영·인문학강좌를 개최하는 등 시범운동을 거쳤다. 이름(폴리곤)이 다각형을 뜻하는 것처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개방적인 사고와 접근을 추구하는 의미를 담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었다. 또 운영 비용·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체계적인 계획을 갖춘 후 개관한다는 방침이었다.

고민을 끝낸 아트폴리곤이 23일 공식 개관한다.

아트폴리곤이 양림동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개관행사는 양림동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는 미술 전시로 치러진다. 3월 25일까지 '양림의 화가들'을 주제로 황영성·우제길·한희원·정운학·신수정·이이



정운학 작 '흔들리는 부처'

남 등 양림동 출신 작가 작품을 전시한다. 원로부터 중견까지 다양한 세대 작가들을 초대해 회화, 미디어아트, 설치 등 미술의 다방면을 선보이며 개관을 축하하고 미래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황영성 화백은 사람, 소, 물고기 등이 정겹게 어우러지는 '가족이야기'를 출품한다. 양림동에서 작품활동을 했던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각종 조형언어들로 캔버스

정운학 작가가 작업한 LED 작품 '흔들리는 부처'는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불빛과 자애로운 미소를 띤 부처상의 인상을 통해 편안함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그밖에 신수정 작가의 '관조'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광주국제아트페어에서 원판성과 거둔 시리즈다. 캔버스 전체에 물감을 여러겹 두껍게 칠하고 긁어내는 기법을 사용해 강물에 비친 풍경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이다.

개관전 이후에는 미술, 음악, 인문학 등 다양한 장르가 한데 녹아든 실현적 창작장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기획은 호남신학과와 연계, 실용음악·국악·클래식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들이다. 각 분야 음악가들이 협업을 해 신선한 음악을 만들고 연주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기존에 호응을 받았던 예술영화 상영이나 인문학 강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모마의 휴일', '해어화'를 함께 보고 임진모 음악평론가, 전찬일 영화평론가 등이 참여한 인문학 강좌를 진행했다. 올해도 발길을 붙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생각이다.

정현기 대표는 "앞으로 대관을 비롯해 전시·강좌·공연 등 문화예술분야 프로그램들을 자체 기획해 운영할 예정이다"며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참여 작가들이 창작한 성과물도 정기적으로 전시하는 등 새로운 문화명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70-4240-097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듣도 보도 못한 작가'전 지역 청년작가 지원...내달 19일까지 본관 아트라운지



강지수 작 '일상의 행복'

광주시립미술관이 본관 로비 아트라운지에서 지역 청년기획자와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듣도 보도 못한 작가'전을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문화예술을 통해 인식 개선,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있는 정경택씨가 기획을 맡았다. 정씨는 꾸준히 작업하며 조용히 성장하고 있는 청년작가 강지수·고치분·김예림·송혜원·오경민씨를 전시참여작가로 선정했다.

작가들은 염색천, 갈대 등 다양한 재료로 사회와 인간을 이야기하는 회화 24점을 선보인다.

강지수 작가가 출품한 '일상의 행복'

은 염색섬유와 건축자재 등으로 만들어졌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 조각에 작은 집들을 배치하며 한쪽의 산수화처럼 표현했다. 고치분 작가의 'The houses2'는 '집'을 단순화시켜 반복적인 패턴으로 그린 작품이다. 평안·침·즐거움·행복 등을 의미하는 집을 소재로 관람객들에게 작은 휴식을 선사한다.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참여 작가의 소품 1점이 담긴 박스를 10개 준비해 소정의 균일가(10만원 상당)로 판매하는 랜덤박스 이벤트와 참여 작가들의 작품 이미지를 넣은 달력을 제작해 무료 배포(1인1부)할 예정이다. 문의 062-613-71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전남문화관광재단이 2017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는 '토요 문화학교'와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으로 구성된다.

'토요문화학교'는 아동·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주말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0여개 단체에 10억26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공모'와 '문화사각시대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기획공모', '토요문화학교 거점공간 활성화'를 위한 '거점문화예술교육기관 공모'로 나뉜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은 지역·주민밀착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0여개 단체에 2억4200만원을 지원한다. 단계별 육성전략에 따라 '신규단체 육성', '자유 주제 공모', '주제 설정 공모', '지역 특화 공모' 등 총 4단계로 진행된다.

참여 희망 단체는 27일부터 3월6일까지 각 시·군 문화예술과나 재단 홈페이지(www.jact.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오는 4월부터 '생활문화 예술교육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양성사업', '토요문화학교 기획사업', '문화파출소 운영사업' 등 자체 기획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061-280-5843, 584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M갤러리 대관안내**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아프리카 쇼나조각**

**아프리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